

생활불교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한국불교는 신행의 방향을 불교의 생활화로 맞춰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신도들은 기복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0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첫 자리를 마련한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전국 순회법회는 일급반의 법석을 통해 1만명의 불자들에게 신행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계속될 이 순회법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다양성과 전문성에 있으며, 사회의 메카니즘화는 자아상실감과 소외감 속에 잠기게 합니다. 선불교는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며, 연기법이나 공사상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인간성 상실을 인간성의 극대화로 전환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지를 순례하면서 한국불교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직도 농본문화사회를 배경으로 삼좌부 불교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산업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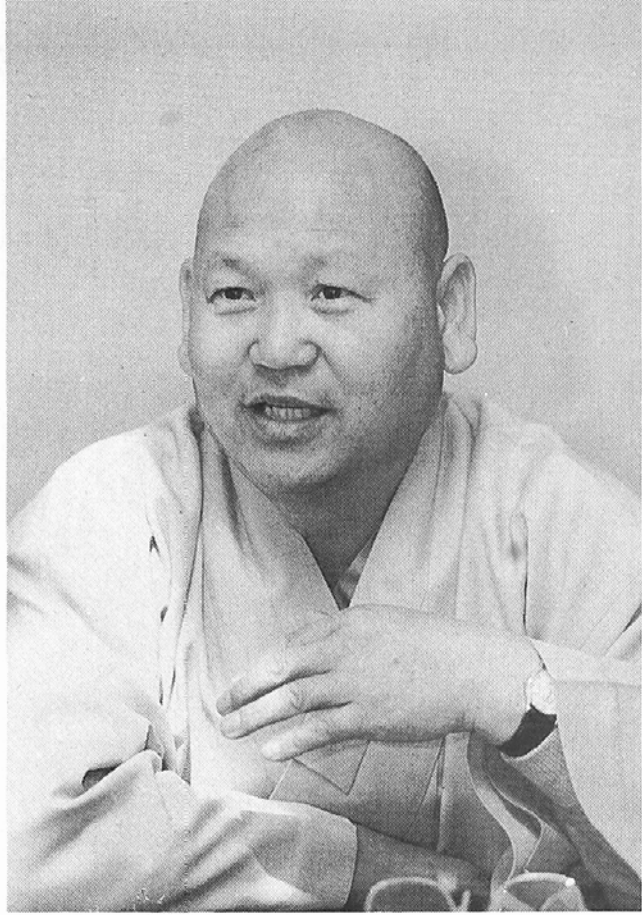
### 수요인터뷰

#### 신행순회강연 나선

####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지난 4월 7차에 걸친 순회강연회를 치루시느라 노고가 크셨으리라 봅니다. 총 1만여명의 청중을 접하셨는데 순회강연회의 목적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한국불교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회강연회는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각지역의 사부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신행하고 있는지

과정에서 불교신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불교가 산업사회에 완전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산업화과정에 있는 불교 국가들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불교의 재정립은 세계불교 중흥의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현 한국불교신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전환기적 현상임을 감안하고 새로운 신행운동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찰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나의 수행일기

고현 ▲조선대 미대교수

“스님, 계십니까?” 여름방학 한 달만 이 암지에서 지내고 싶어 찾아온 학생입니다. 초여름 석양이었다. 옥색 위 아래 교복에 핏뚱하게 풀먹인 하얀 칼라가 유난히 단정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모자를 벗고 깊숙히 인사를 하고 서 있었다. 뒷걸거리는 시골버스에서 내린 후 한 시간 가까이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고 쉬임없이 걸어 올랐던 타인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어제 밤에 단청 불사를 한다는 화공(畫工) 하나가 찾아온 꿈을 꿴다... 너 맞잖아냐?” 노스님은 그저 일상의 여윌한 표정으로 소년을 그윽히 바라보며 되물었다. 30년전 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나의 출발이 이랬다. 누구의 안내도, 포교도, 심지어 경전 한 귀절도 모르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제발로 전생의 인연을 따라 찾아왔던 선운사 도솔암이었다. 20대 전후에는 전혜린과 스티니파티에 빠져 허무주의와 출가(出家)의 소망이 비뚤뚤이 되더니 산에서 살 팔자가 못된다면 부처님 화상이나 원앙이 그려보라고 20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불교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이라는 화두를 붙안아 꿈적도 못하고

들이 찾아와 서로 차를 나누다가 사월 초파일 행사를 하며 교정에 설치한 연등 얘기가 나오자, 두 녀석들이 모두 ‘이번 행사에 한번만 더 그러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씨근덕거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켜 보냈다. 우리는 초파일에 길거리에 설치한 연등을 찾아 놓거나 담배불로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보고 살아왔다. 불자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행동인지 충분히 짐작한다.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깨지거나 찾아진 연등을 보고 혀를 끌끌 차겠지만 결코 불교를 욕하지는 않는다.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일부러 보기 흉한 불량품을 걸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시민들의 수준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집안의 장남으로 동생이 넷이 있는데 모두가 카톨릭 신자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말을 농담삼아 건네기

# “생명의 윤리 일깨우기 불교 몫”

## 고향 잃은 세대... 사찰이 지역문화 중심돼야

알아 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지요. 생각 밖으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본 연구원이 중요시해야 할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불교적 사회윤리의 개발과 제시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순회강연회를 계속하려 합니다.

▲국민의 수행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면 정신적 공황도 초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주로 광활한 자연과 어울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안아 줄 수 있는 고향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사람은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권 교육 이외에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명의 윤리를 일깨우며, 전국민의 사상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교는 그러나 현재는 아니지요. 불과 1백여년 사이에 세계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논리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다양성과 전문화가 사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교양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승려교육에서 간과해선 안됩니다. 적어도 정신적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문명과 역사를 이끌어 가는 唱導師가 되기 위해선 과감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의 혁신적인 한국불교의 장래가 어둡다는 점입니다.

확립하고 정치가 반불교적 질서나 생명의 윤리를 지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한국불교의 현황과 산업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는 불교사상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하는데 불교적 생명윤리의 확산과 새로운 신행모델을 개발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20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승조스님의 계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 구복신앙 벗어나야만

-신행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한국불교의 신행형태가 지난 장단점은 무엇이라 보시지요. ▲한국불교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은 농본사회를 문화적 배경으로 했던 과거의 감성적 신행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들의 의식 수준도 소승적 구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가 구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전적으로 구복에 의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종교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요. 장점이려면 선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승가의 중심축인 승려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불교의 흥망성쇠는 승려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승가의 교육은 4백~5백년전에 이룩된 학제·교재·교수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당시의 엘리트 승려를 양성하기에 충분했다고

### 변화 능동적 대처 필요

-외람됩니다만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과 지나치게 유착하여 자주성을 상실하면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은 권력의 비호 아래 존속하는 종교를 부정하고 되면 된다고 때문입니다. 결국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교사상에 입각한 자주성을

대대: 차차서 조사자료 부장

살아간다. 그래도 속가 살림 속에서 두가지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집사람이 이제는 나를 포기해 버렸는지 법정스님 따라 전국을 떠돌며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팔도만행을 이해(?)해 주고 특이하면 작업 때문에 이 절 저 절 돌아다니는 역마팔자를 보여 ‘난 어떡하랴’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소득은 국민학교 4학년인 둘째 딸 아이가 가깝게도 이미 출가를 결심해 준 사실이다. 이 아이는 이상하게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음에 커서 오고 갈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 하더니 어느 날, 노인들이 몸이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스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한마디 해준 뒤로는 지금까지 ‘스님의사’가 장래희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요즘,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부처님을 찾아 헤메는 집사람에게 흐트하고, 훗날 늙은 애비 오체투지 절을 받을 스님이 될 내 딸이 생각에 사는 맛이 새롭다. 나의 수행목표이자 오로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불교미술의 현대와 작업을 통하여 불교가 구태구습의 탈을 벗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을 깨뜨려 가면서 5백년, 천년뒤에 올 후손들에게 오늘날 불교미술의 한 단면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을 따름이다. 어제는 대불전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

도 하지만 단 한번도 부처님과 예수님을 싸움부터 본 일도 없으며, 가끔 동생들을 만나 꼭지를 들길 때면 부처의 말씀이 안주가 되고, 예수가 주(酒)님이 되기도 하지만 머리는 늘 파란대소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피를 나는 형제도 각각의 뜻대로 서로의 인연에 따라 각각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 피터 버거는 세계의 종교를 ‘에루살렘’형과 ‘바나레스’형, 즉 이스라엘과 인도의 모습으로 구분하고 ‘초월성’의 종교와 ‘내재성’의 종교로 대별했다. 나와 다를 수 밖에 없는 타인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고서는 공격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태도-행위 우리 불자들은 그런 행동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성해 볼 일이다. 지금껏 30여년 불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또 불교미술의 현대화 작업에 금생의 한평생을 걸어 볼 작심이지만, 나는 사유(思維)의 틀과 관조(觀照)의 삶을 잃어버리고 오직 유일의 맹신의 뜻을 두렵게 입고 있는 어떤 종교인도 거부한다. 어제 내 제자들에게 진심(真心)을 다스리라 일러주었던 잡야함경의 한 말씀을 여기에 옮겨본다. ‘나는 이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와 다투는 뿐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법다운 진리를 말하는 이는 결코 세상과도 다투지 않는다.’

오소 라즈니쉬의 명상강의록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2장경

황광우·이경옥 옮김

성야출판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들어갔고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 저·역자 / 오소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 가격 / 각권 7,500원
-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 발행처 / 도서출판 성야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